

에스트래픽,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개량사업 수주

- ▶해외서 안정성과 편의성이 입증된 신형 전자연동장치 국내 고속철도 도입,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
- ▶앞선 기술력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향후 추가 전자연동장치 개량사업 수행 교두보 삼을 것

<2022-04-29>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(234300, 대표이사 문찬중)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'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개량사업'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.

에스트래픽은 LS일렉트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. 총 계약 금액은 292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70%는 에스트래픽의 매출로 인식된다. 이는 2021년 연결 매출액 1,374억 원 대비 15% 수준이다. 사업기간은 2022년 0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.

'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개량사업'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2개역(광명역, 천안아산역)의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고속철도용 전자연동장치를 신형 고속철도용 전자연동장치로 개량하여 열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. 신형 고속철도용 전자연동장치는 기존 제품 대비 성능 및 유지보수 편의성이 향상되어 안전한 열차 운행에 기여할 수 있다.

에스트래픽 관계자는 "해외에서 설치 및 운영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신형 전자연동장치(SML400)를 국내 고속철도에 도입해 철도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"며 "본 개량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기존 설비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개소나 고속철도 신설 개소에 신형 전자연동장치를 설치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, 기존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(서울~동대구, 2004년 개통)과 2단계 구간(동대구~부산, 2010년 개통)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기존 전자연동장치의 ▶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화, ▶기존 제품의 단종으로 원활한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번 개량사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